

국힘 “시한폭탄 방치 한심” 민주 “美에 말려들면 안 돼”

여야, 트럼프 관세인상에 엇박자... 책임공방
민주 “국힘 비준안 통과 판지... 발목 잡아”
국힘 “자랑하던 협상 몇 달 만에 취약 드러내”

국회의원은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을 거론한 것을 두고 “비준 없는 관세 합의는 ‘성공’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의 책임을 국회의원에 돌리며 반격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트럼프가 한국 ‘입법부’를 거론하며 자동차 등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압박했다. 정부가 한때 ‘합의를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성공’이라 자랑하던 협상이, 몇 달 만에 흔들리며 ‘취약한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통상-재정 결정이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구속력 없는 MOU’라는 변명 뒤에 숨어 이를 회피했

다”며 “대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땀질해 발의만 해놓고, 상임위에서 묵혀두며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쟁용 법안은 의석수로 밀어붙여 초고속 처리하고, 국의 직결 법안은 정치화면으로 방치해 놓고선 대통령이 이제와 ‘국회가 느리다’는 말로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함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즉시 야당과 머리를 맞대 비준 절차에 착수하고, 국민 앞에 협상 내용과 부담, 이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대응이 안이었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미국 내 동향을 파악하는 데도 조금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현(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원 기자

또한 “여당 측에서 입법 폭주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당연히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당이)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 국민과 야당을 납득시켜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에서 입법 폭주가 아니라 국익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언을 놓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준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합의 위반을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합의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MOU로 했던 것이고 그냥 제출

만 하면 내려주기로 했던 것이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짜증이 나고 조급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관세 압박해 놓고 올린다고 해놓고 철회한 게 지금까지 28차례”라며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입자 의원인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아니라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뽀니를 부리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치훈 이날 YTN 뉴스UP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비준이라고 돼 있지 않고 제정으로 돼 있다”며 “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것이지 비준을 빨리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건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의 입법부, 그 안에서 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을 지적한 것”이라며 “본인들(국민의힘)을 향해서 나무라고 있는 건데 왜 이걸 못 깨닫고 있는지, 지금 국민의힘만 뽀니를 부리고 있다는 걸 국민들 다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라고 하더라도 법안의 표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의 주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뽀니를 부리면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소진공 이사장에 ‘김어준 처남’... 국힘 “보은인사·매관매직”

野, 뜬금없는 인사 맹공
“자리 나눠먹기 불과” 비판
국회의원은 28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자 비서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

된 것과 관련 “전문성과 공정성, 정책 실행 능력이 최우선이야 할 자리에 뜬금없이 김어준 씨의 처남을 앉힌 것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이자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인 전 비서관은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를 설립해 일본 제품 불매, 최저임금 인상 찬성 운동 등 정치적이념적 활동을 주도해온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정책 자금 운용, 전통시장 지원, 상권 육성 등 막중한 역할을 맡은 기관”이라며 “연 5조 원대의 예산을 약 79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을 위해 선전, 선동을 서슴지 않는 대표적인 나팔수 김어준 씨의 처남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김어준과 사실상 공동 정부를 꾸리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매관매직과 다르지 않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개적으로 김어준 씨를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와 직결된 기관을 논공행상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인사가 과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결정이었는



인태연 소진공 신임 이사장. 연합뉴스

지, 아니면 ‘개팔의 교주’ 김어준에 대한 보은이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다 똑같은 사기꾼” 막말 판사 여전

서울변회, 2025년 법관평가 발표
우수법관 72·하위법관 20명
1341명 평균 점수는 84.188점
동부지법판사 5회나 하위 선정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법관을 평가했더니 고압적인 판사와 불합리한 소송지휘, 부실한 판결문, 사실 검토 없는 재판 진행 사례가 쏟아졌다. 소송 당사자에게 “다 똑같은 사기꾼”이라고 폭언한 판사도 있었다.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28일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판사 3302명이 2024년 11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지휘한 재판 2만 3229건에 대한 평가였다. 서울변호사회는 7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가운데 우수법관 72명을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는 13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고등법원(9명)과 서울행정법원(5명)도 우수법관이 많았다. 대전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각각 4명이 선정됐다.

평가점수 최고점은 100점이었다. 권순형(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주완(34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최고점을 받았다. 권순형 판사는 당사자와 변호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절차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상훈 대전지법 흥성지원 판사와 이지현 수원가정법원 판사는 3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은 총 20명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하위법관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소속 법원을 밝혔다. 최근 6년 동안 5차례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판사 D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이었다. D는 2023년 조정 권유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예전 같았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에는 소송대리인에게 “화나게 하지 말아라”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5명 이상의 회원에게 평가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이었다. 막말 판사가 여전하지만 전년(83.789점)보다 점수가 소폭 상승했다. 박지혜 기자 parkjh@skyedaily.com

스카이 만평 김용덕
이걸, 화, 꺼버려...
한동훈 장동혁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박정용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다시 새겨보는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 저성장·고물가·고환율·고실업률
● 고질적 노사갈등
● 고조되는 양극화 갈등
● 세계최저의 출산율과 노령화 사회
● 폭발적인 가계부채
● 위협받는 무역수지
● 가속되는 중국의 기술추월
과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가?
그의 재근과 격려와 다그침이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울린다. 축복할 시련에도 불타올랐던 그의 도전정신과 위기에 맞선 불굴의 용기, 빛나는 발상력의 기록

Part 1 멈출 수 없는 도전
01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시대의 ‘이단아’
02 ‘버려 달고’ 세계를 누비는 국산 자동차의 오늘과 내일
03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든 뜨거운 열사의 땅 중동 건설시장
04 한국인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전시장 조선소
05 40년 숙원 고로에 불을 당긴 현대 제철
06 가슴에 묻고 간 평생의 연인 통일
07 중국, 가깝고도 멀 수밖에 없는 나라
08 국제무대 등단의 무대 전경련 회장직

Part 2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놓은 다리들
01 경제성장을 위해 절실했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02 자동차 독자개발을 놓고 벌인 미국과의 비밀 담판
03 모두 안 원하던 조선소 발상,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
04 석유파동으로 빈사 상태가 된 한국경제를 구한 기상천외한 발상, 중동 건설 진출
05 88서울올림픽 유치기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하에 오직 한 사람

Part 3 그의 정신, 그의 기상
01 통일에 대한 갈망과 집념은 그에게 하나의 신앙이었다
02 정치색인, 더 잘사는 사회... 통일을 위해 단정된 비장한 출사표
03 평생 노동자의 가슴을 품고 싶었던 ‘성공한 노동자’
04 돈 액수의 자력보다 쓰임 가치를 쫓았던 ‘큰손’과 ‘구두쇠’
05 앞서는 비결, 남다르게 생각하고 남다르게 행동해야
06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교수가 본 정주영
07 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Part 4 인간 정주영
01 정주영·이병철, 갈등과 아름다운 화해
02 만능 엔터테이너 재벌 총수의 18년
03 건강관리 비법과 아킬레스 건
04 단순화와 직관력의 달인